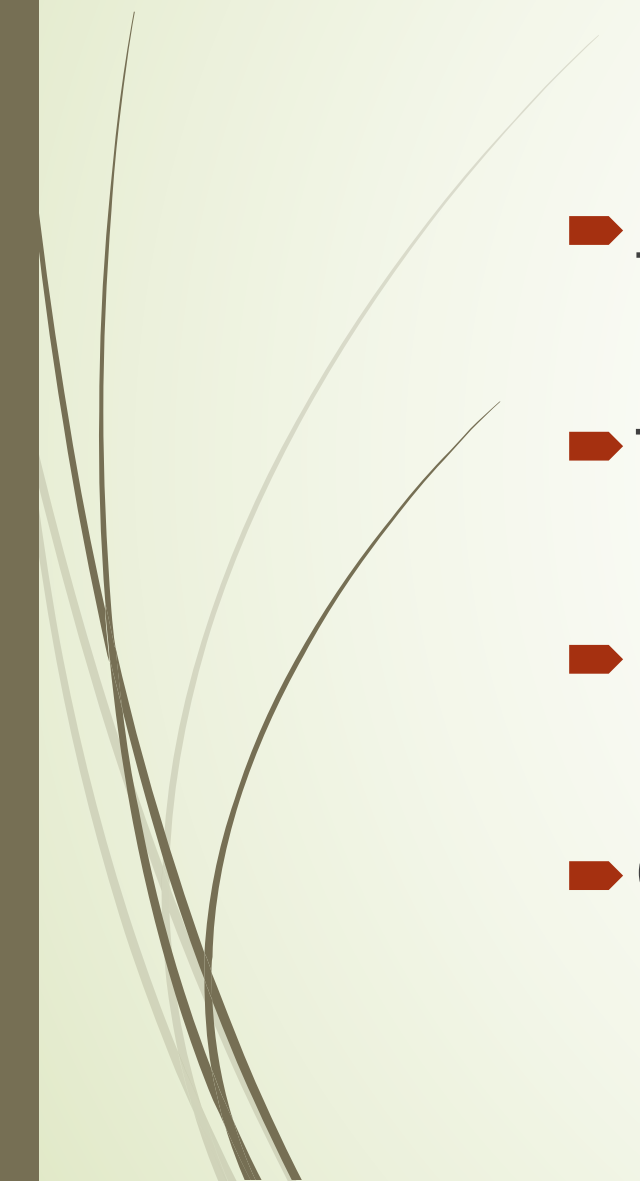


〈오만과 편견〉
문학과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까

(전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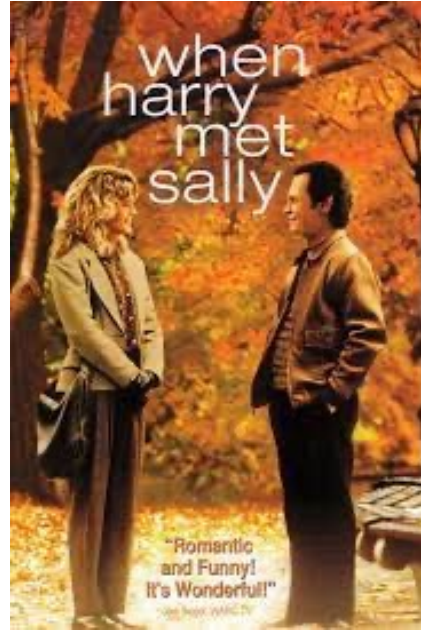


수업 목적

- 
- ▶ 로맨스라는 장르를 살펴보고,
 - ▶ 하나의 소설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한 후,
 - ▶ 〈오만과 편견〉에서 현재적 의미를 정리해보자.
 - ▶ 이를 통해 문학,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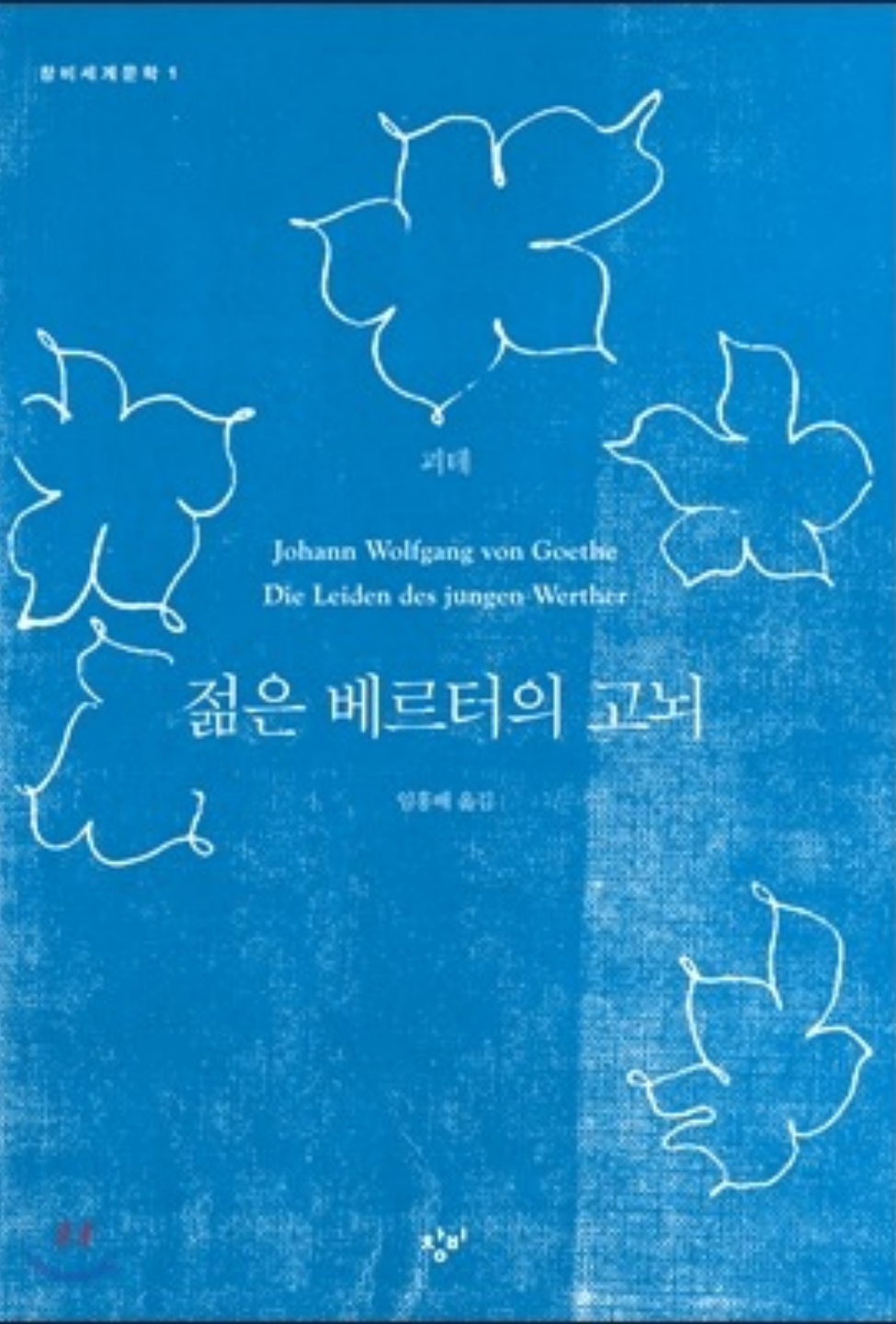
1. 로맨스(Romance)란?

- ▶ 본래 기사 이야기
- ▶ 멜로 드라마=로맨스 장르로 이해된 것은 1900년대 정도부터
- ▶ 미국 로맨스 작가 협회(Romance Writers of America [RWA])
: 로맨스는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고,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낙관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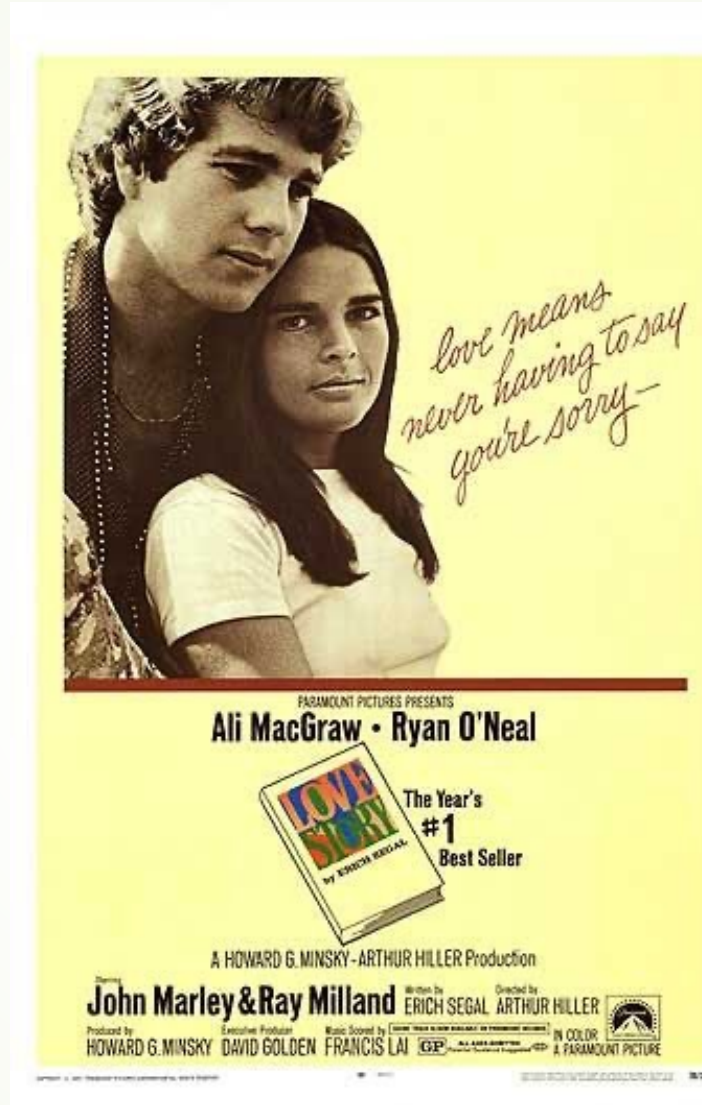
- ▶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보여줌.



1774년 (질풍노도 시기) 이성이 억압한 감정...

- ▶ 베르터는 로테를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는 약혼자가 있다. 베르터는 로테를 읽으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베르터는 자신의 사랑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그녀의 남편을 질투하다가 자살한다.
- ▶ 베르터가 상징하는 것은?
자연=예술=사랑,
- ▶ 본능, 욕구, 욕망

영원한 사랑에 대한 동경.





세계문학전집 118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에밀리 브론테 김홍길 옮김

사랑과 광기...



오늘 볼 로맨스의 유형은?

■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

1. 이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나?

2. 누구를 택할 것인가?

-> 오만과 편견



2. 〈오만과 편견〉의 내용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는?

예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매력 있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

신데렐라? 키타리 아저씨?

제인 오스틴의 삶

1773년 : (팔남매 중 7번째 아이, 둘째 딸로) 태어남

1790 : 〈사랑과 우정〉 탈고

1796 : 〈오만과 편견〉 초고 〈첫인상〉 집필 시작

1802 : 청혼을 받고 응낙했다가 다음날 거절함

1811 : 〈이성과 감성〉 출판

1812 : 〈오만과 편견〉의 판권을 110파운드에 판매

1816 : 오빠 헨리의 은행 사업 실패로 경제적 타격

1817 : 7월에 영면. 12월에 헨리는 그동안 이름 없이 출간된 소설의 작가가 제인 오스틴임을 밝힘



제인 오스틴 시대의 여성

- ▶ 양갓집 여성은 경제적 자립 수단 거의 없음
(여성이 가능한 직업 : 입주 가정교사, 문필가/귀부인의 말벗)
- ▶ 그래서 여성은 거의 배우지도 않았음.
- ▶ 여자는 별로 상속을 못 받아서 결혼 못하면 오빠/남동생에게 의존해야 했음.
- ▶ 따라서 여성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이었음.
(그러나 지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결혼하기 힘들었음)
- ▶ 이혼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했음.

베넷 가족 인물 소개

베넷 씨: 어린 시절 외모만 보고 베넷 부인과 결혼했다가 후회하고 아내에게 비아냥

베넷 부인 : 아름답지만 속물적. 사랑, 처세에 대해서는 잘 앎.

제인 베넷 : 첫째, 가장 미녀. 빙리와 결혼.

엘리자베스 베넷(리지) : 책 읽고 현명함. 주인공. 다시와 결혼.

매리 베넷 : 셋째딸 : 자매 중 유일하게 안 예쁘고, 열등감 매우려 독서/음악에 매진

캐서린 베넷(키티) : 본래 무분별, 부절제한 인물이었으나 언니들이 상류층과 결혼한 후 품위가 생김.

*콜린스 : 비굴하고 오만함. 베넷가의 친척인데, 베넷 자매 중 한 명과 결혼하려함



주변인물 소개

피츠윌리엄 다아시 : 오만하고 따뜻한 느낌의 남자.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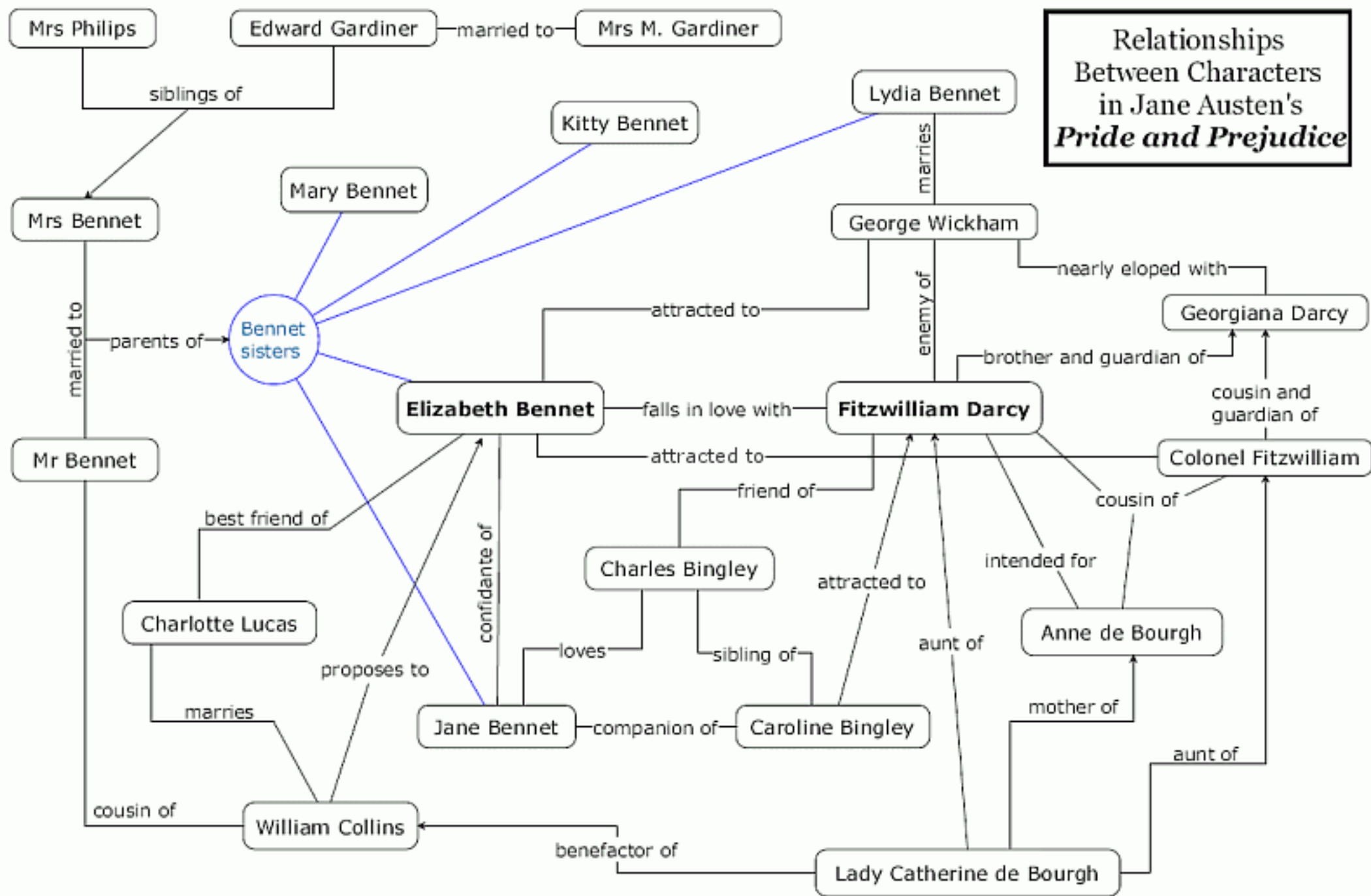
조지애나 다아시 : 다아시 씨의 여동생. 위컴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야반도주 하려다가 오빠와 상담하고 무산됨.

위컴 : 잘 생기고 재치 있는 남자로 보이지만 험잡꾼. 리지와 썸을 탔고, 다아시에 대한 모함을 해서 편견 가지게 함.

찰스 빙리 : 다아시의 친구, 신사, 제인과 서로 사랑했으나 다아시가 오해를 해서 해준 충고에 제인을 떠남.

샬럿 루카스 : 엘리자베스의 절친. 재산 보고 콜린스와 결혼해서 엘리자베스의 실망을 사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납득.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엘리자베스/ 다아시의 인연

출처 : 대학내일

이후 내용은... 제인,
빙리 등등..

베스트셀러
걸작기

괜히 원조가 아니다, 로맨스 소설의 조상

〈오만과 편견〉

대학



아 모르는 사람이랑
춤추기 싫다.

거만한 자식.
용서 못 해.

순탄치 못한 첫 만남

〈오만과 편견〉

출처 : 대학내일

” 편견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한편, 편견과 오만은 양쪽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래 제목 : 첫인상.

베스트셀러
걸작기

괜히 원조가 아니다, 로맨스 소설의 조상

〈오만과 편견〉

대학내일



다아시

오만



엘리자베스

편견

편견 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 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관계(단순화시켜서)

- 엘리자베스 - 다아시 : 교양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자.
- 제인 베넷 - 빙리 : 아름다운데 왠지 인간관계에 서툰 여자, 관참은 남자,
- 샬럿 루카스 - 콜린스: 경제적 목적을 감안한 사랑.

-> 이렇거나 다른 모든 커플이 잘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모습 보여줌.

이 작품은

-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베넷-빙리 같은 커플도 있고, 샬럿-콜린스처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애도 있음.
- 엘리자베스-〉다아시에 대한 생각 변화
- 엘리자베스 : 본래 다아시의 태도를 보고 오해
- 다아시 : 경솔한 말을 했음.
- 엘리자베스 : 위컴과의 만남,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다아시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함.
-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기도 됨.



냉철하지만 따뜻한 작품

한 시대의 여성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줌.

그들의 사랑이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존중해줌.



〈오만과 편견〉의 장점?

뻔하지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줄거리

+

매력적이고 솔직한 인물들의 상호작용.

+

당시의 풍속, 여성의 삶

+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

‘품행서’의 시대

▶ 여성의 삶에서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택하고 유혹하고 선택 받을지를 설명한 품행서가 많이 나오고 있었음.

-> “여자는 ‘여성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 “여자는 예의범절 바르고 조신하며 춤 잘춰야한다”

-> “남자에게 빨리 마음을 보이면 안된다. Or 적극적으로 마음을 편지로 표현해야 한다.”

품행서와 비교할 때 <오만과 편견>은

재미 : 뻔하지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줄거리

+

재미 : 매력적이고 솔직한 인물들의 상호작용.

+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

+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



〈오만과 편견〉에서 느낄 수 있는 것

1. 사랑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다.

2.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 가치관, 인생의 문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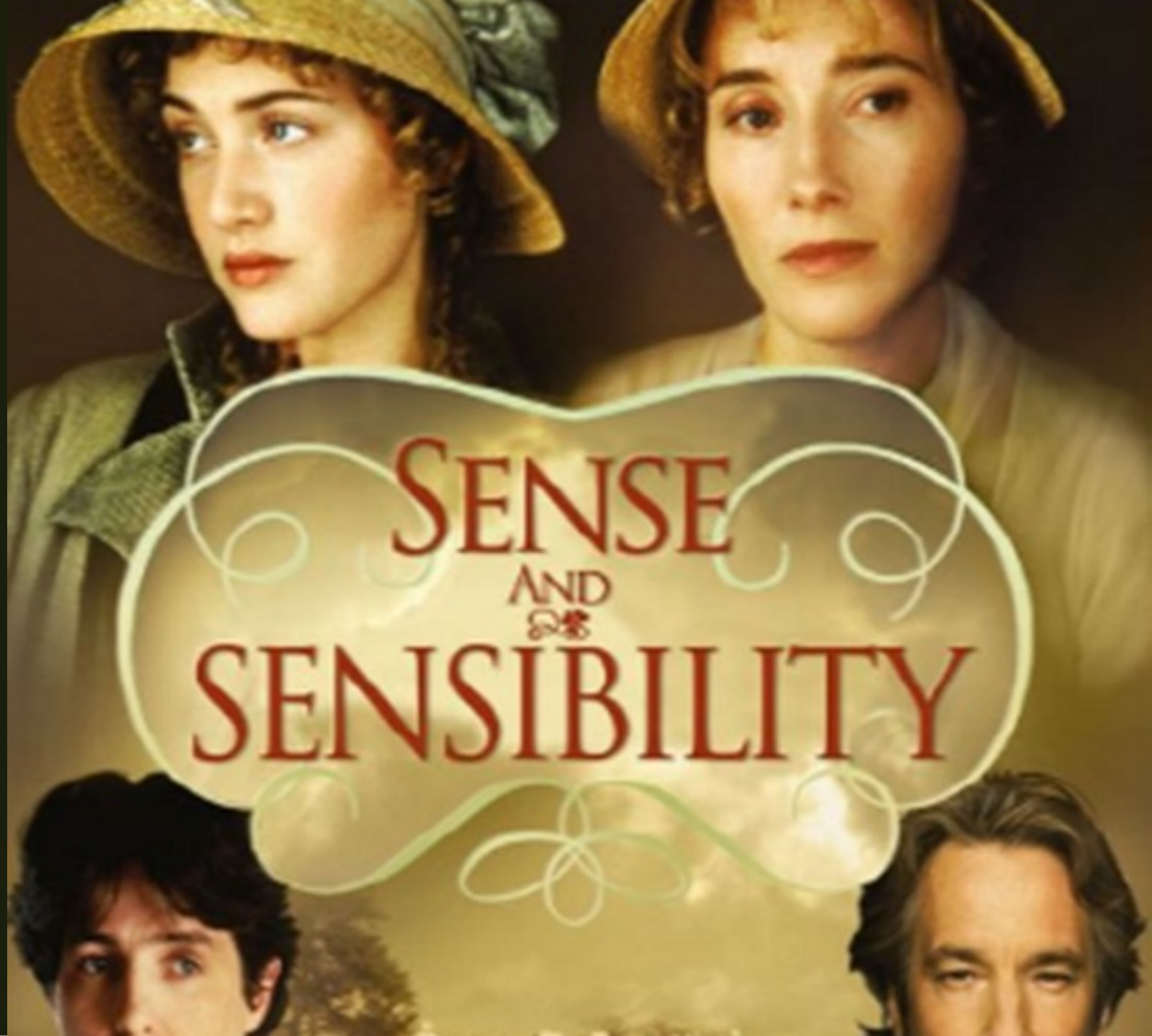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는 예술?

1. 돈만 보는 결혼은 나쁘지만, 돈 없는 결혼은 어리석다.

2. 이성이냐? 감성이냐?
(Sense And Sensibility)


3. 이것은 계몽주의, 개인의 자유와
연관된 문제.


4. 이를 정공법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단순함.






이 문제들의 현재성 → 장르화

1. 사랑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다.
 2.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 가치관, 인생의 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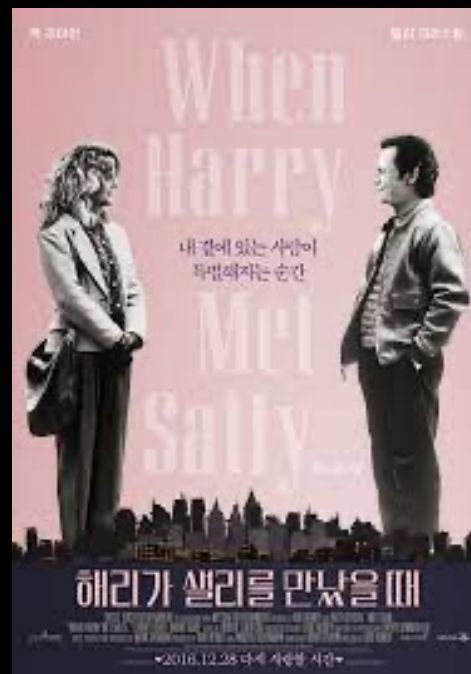


오만과 편견=로맨틱 코미디/ 삼각관계 서사의 기원

- ▶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 ▶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 아니어도
자아실현할 길이 있다.
 - ▶ 그러나 연애/결혼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
사항이다.
- 

사랑으로 인해 바뀌는 사람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나무 위키 인용)

- ▶ **발단**
두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 이때는 아직 로맨틱한 감정이 싹트기 전이다.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 경우는 드물며, 대개 우연적이거나 우스꽝스런 사건으로 엮이게 된다. 때로는 해당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예 만날 일이 없었을 신분이나 계층인 경우도 있다. 높은 계층이 남자 쪽인 예는 귀여운 여인, 여자 쪽인 예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로마의 휴일, 노팅 힐 등이 있다.
- ▶ **전개**
둘이 조금씩 가까워지며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싹튼다. 하지만 아직 서로나 본인의 마음에 확신은 없는 상태. 보통 이 부분에서 영화 러닝타임의 상당부분을 잡아먹는다.
- ▶ **위기**
우연한 사건이나 오해로 인해 둘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온다. 대개 원인은 연적 (주로 전 애인)의 등장, 아직 확신이 없어 발생하는 다툼, 둘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건, 현실적인 장벽(신분이나 계층 차이 등) 앞에서의 좌절, 꼬여버린 타이밍 등이다.
- ▶ **절정**
둘이 서로에 대한 진심을 깨닫고 위기가 해소된다.
- ▶ **결말**
해피엔딩 해피엔딩. 검사검사 잉여 커플이 탄생하기도 한다.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 구도

- ▶ 왜 로맨틱 코미디가 많을까?
- ▶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선택으로서의 사랑- 한 국의 작품들

- ▶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 ▶ 동양에서 과거
삼각관계는 거의
없었다.

예시 : 모택동이 괴테에 대해 한
이야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

어떤 사랑을 택할 것인가?

요즘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브컬처들에서...



삼각관계의 시대?


출처 :

<https://www.instiz.net/pt/6775303>



정리

-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설정 : 웨이프 오브 워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로맨틱 코미디들...
- 어떤 사람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의 설정 : 춘향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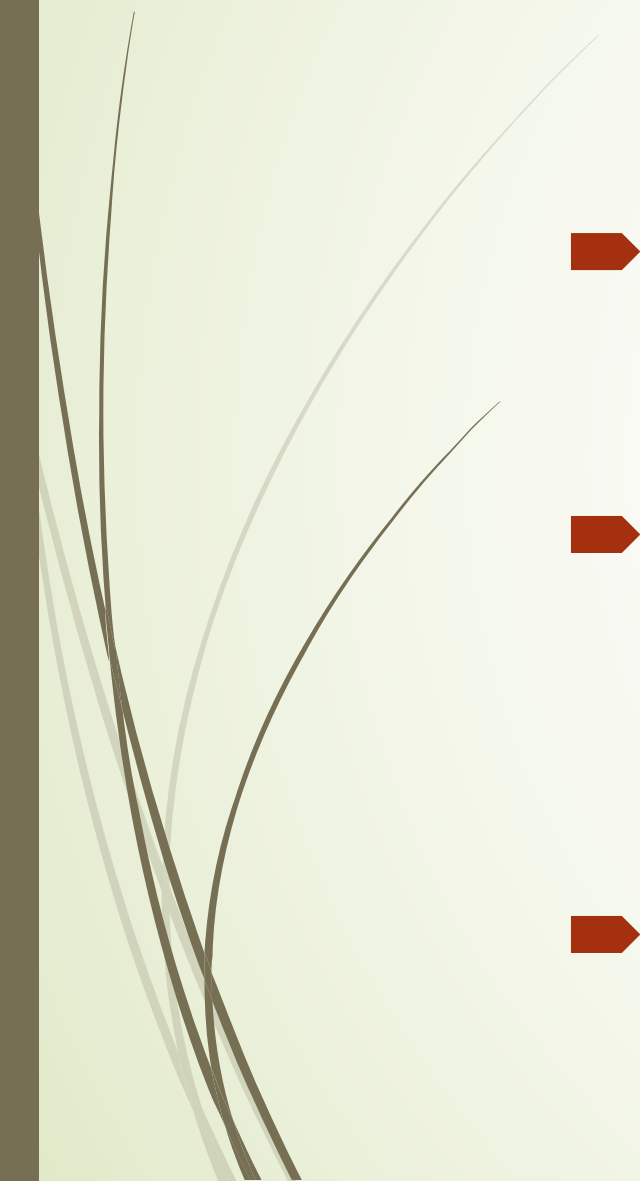


2000년 이후로는, 이전과 같은 로맨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왜?

- ▶ 사회의 변화(결혼, 연애는 선택!)
- ▶ 사랑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 ▶ 사랑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설정이 단순화된 것이고 비현실적이라서.
- ▶ 이상의 이유때문에 사랑 이야기가 식상하고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랑/결혼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도

- 과거의 사랑 이야기는 감동과 재미를 준다.
 -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는 정도가 다를지언정 변용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 연애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랑의 힘”과 “선택의 중요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 

우리는 과거의 예술을 보면서
현재를 생각할 수 있다.

- ▶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이겨낼
힘이 있다.
- ▶ 꿈을 이루는 데 출신은 중요치
않다.
- ▶ 용기는 자신의 공포와 마주할
수 있는 자질이다.
- ▶ 사랑과 우정은 가장 큰 힘이다.





4. 문학과 영화에 대하여

➡ 문학의 묘사 vs 영화의 매력





첫 문장(문학동네 판본 9쪽)

큰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라면 마땅히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남자가 이웃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 그의 감정이나 생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도, 인근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워낙 굳게 자리잡고 있어 그는 그들 딸들 중 누군가가 으레 취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베넷이 다아씨를 쏘아 붙인 후 1 (문학동네 판본 71쪽)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의 시선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신사의 호감의 대상일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혐오의 시선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이상했다. 하지만 마침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지닌 웅고 그림의 개념에 비취볼 때 자신이 방안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못되고 비난 받을 여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이었다.

베넷이 다아씨를 쏘아 붙인 후 2 (문학동네 판본 71쪽)

“베넷 양, 춤을 출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녀는 미소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조금 놀랐는지 그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머!” 그녀가 대답했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해서요. 아마 제게서 ‘네’라는 대답을 듣고 제 취향을 무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 역시 늘 그런 계획을 뒤집어놓고, 상대방의 계산된 경멸을 피하는 데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이라서요...”



영화-고백썬.

▶ <https://www.youtube.com/watch?v=wWZQj668pE4>

